

# 압구정 조합설립, 재건축 잔걸음... 목동도 안전진단 서둘러

압구정 4구역 현대·한양 아파트 강남구청서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현 1300가구 재건축엔 2000가구  
목동신시가지 2·3·4단지 아파트  
재건축 1차 안전진단 조건부 통과



지난 10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4구역 내 한양아파트 전경. /뉴스시스

서울 강남 압구정과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 4구역은 지난 10일 강남구청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 지구 특별계획구역에서 첫 번째다. 이로써 해당 구역 조합원은 2년 의무거주요건 등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압구정 4구역은 현대아파트 8차와 한양아파트 3·4·6차로 구성돼 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현재 1300여가구에서 2000여가구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는 정부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을 개정, 2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에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면서 조합 설립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2·3·4단지 아파트도 재건축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에 시동을 걸었다. 목동 2단지과 3단지, 4단지는 재건축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통과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세 단지의 점수는 각각 52.31점, 51.92점, 51.66점이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14개 단지 중 7개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분류는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검증 필요),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으로 나뉜다.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시설안전공단)의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을 통해 최종 통과 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러나 2차 정밀안전진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서 노후 단지들은 잇따라 재건축 첫 관문부터 고배를 마시고 있다. 2018년 3월 이후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방배삼호, 목동6단지, 성산시영, 목화아파트 등이다. 올림픽션수촌아파트, 불광미성, 월계시영, 목동9단지 등은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음에도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목동 재건축연합 관계자는 "이제 1차 정밀 안전진단이 통과 됐을 뿐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다"라며 "안전진단 완화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데 현재로서는 지자체와 정치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토로했다. 재건축 단지의 노후도를 측정하는 안전진단은 2018년 3월 한차례 기준이 강화된 후 작년에 한 번 더 까다로워졌다. 국토부는 2018년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상향조정하고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강화했다. 지난해에는 6·17 대책을 통해 현장조사 의무화하고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도 자치구에서 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는 올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 <올 상반기 수·용·성 주요 분양예정 아파트>

아파트명	총 가구수	전용면적 (㎡)	분양 가구수	건설사	분양 시기
수원 장안구 정자동 530-6(정자지구 재개발)	2607	48~99	1598	GS건설	3월
수원 권선구 세류동 권선6구역(가칭)	2178	48~101	1231	삼성물산, SK건설, 코오롱글로벌	상반기
용인 처인구 김량장동 309(용인8구역 재개발)	1308	51~84	1069	태영건설	3월
용인 처인구 고림동 용인 고림진덕지구 공동주택(가칭)	2718	59~84	2718	현대엔지니어링	3월

분양일정 등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부동산인포

## 올 '수·용·성' 아파트 1만8000가구 분양 (수원·용인·성남)

작년 대비 2226가구 증가

올해 경기 남부권 '수·용·성' (수원·용인·성남)에서 1만8000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 수·용·성 지역에서 2만3033가구(임대, 오피스텔 제외)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1만796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일반분양 1만5739가구보다 2226가구가 많다.

수원에서는 오는 3월 GS건설이 정자동 111-1구역(정자지구)에서 '북수원자이 렉스비아' 2607가구 중 48~99㎡ 1598가구를 일반공급한다.

도보권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오는 2026년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있으며, 경수대로(1번 국도), 영동고속도로(북수원 IC),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다.

권선구 권선 113-6구역(권선6구역)에선 삼성물산·SK건설·코오롱글로벌이 총 2178가구 중 전용면적 48~101㎡ 1231가구를 오는 6월 분양한다.

용인에서는 태영건설이 용인8구역 재개발로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1308가구 중 51~84㎡ 1069가구를 3월에 내놓는다. 인접한 용인중앙공원에는 등산로와 산책로는 물론 족구장과 농구장, 어린이놀이터를 비롯해 각종 휴식 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성남에서는 성남 최대어로 꼽히는 수정구 산성구역재개발구역이 작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올해 말부터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총 3372가구로 건설사는 GS건설, 대우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이다.

서울 강남 일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투자 및 실수요가 인근 지역인 수·용·성으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풍선포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수원과 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과 인덕원부터 수원,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이 각각 2026년 개통 예정이고, 용인과 성남을 지나는 GTX-A 노선도 2023년 말 개통 예정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직주근접이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수원에는 삼성전자 본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사 등이 있으며, 용인에는 삼성나노시티 기흥캠퍼스, 오산가장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많다. 성남은 상주 인원만 6만4000여 명에 달하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으며, 제2, 제3 테크노밸리도 조성 중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원은 지난해 분양한 11곳이 모두 1순위에서 마감하는 등 수용성에서 1만5000여 가구가 분양됐음에도 미분양 가구수는 작년 12월 말 현재 용인에 있는 40가구가 전부"라며 "모두 규제지역이어서 청약자격과 대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AZ 백신, 26일부터 65세 미만에 접종

###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 65세 이상엔 추가자료 확보후 결정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부터 진행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만 65세 미만에게만 접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던 고령층(만 65세 이상)의 경우 임상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하면 검토를 통해 접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만 65세 미만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시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8일엔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11일엔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백신 접종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0일, 만 65세 이상 국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의사가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투여하라는 단서를 단 바 있다.

추진단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에 있는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됐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돼 중증 진행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유효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에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재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해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추진단은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만 65세 미만 약 27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1차 예방접종을 한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은 이르면 3월 말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35만4000여 명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000여 명은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약 5만5000명은 2월 말~3월 초 도입 예정인 화이자 백신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받게 된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롯데GRS, 희망퇴직 시행... 비용절감 나서

### >> 1면 '경기최악 외식업체...'서 계속

2019년 투썸플레이스를 매각한 데 이어, 현재는 주요 브랜드인 뚜레쥬르 매각을 협상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CJ푸드빌은 매출 회복을 방안에 착수했다. CJ푸드빌의 주요 브랜드는 온라인 비중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지만, 이전에 비하면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다.

비대면 트렌드에 맞춰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RMR(레스토랑간편식)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빔스 프리미엄' '테이스트 업' 등 특화매장도 확대 중이다.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 크리스피크림 도넛 등을 운영하는 롯데GRS도 임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시행하며 비용절감에 나섰다.

롯데 GRS측은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감축은 아니며 매년 안내해오던 내용이란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보고 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롯데GRS는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17.1% 감소한 5185억원에 그쳤고, 13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롯데GRS는 비대

면 서비스 도입에도 적극 나섰다. 롯데 GRS는 터치 없이 주문이 가능한 '에어택트' 기술을 무인 키오스크에 접목했으며 자사 앱 '롯데잇츠', 로봇서빙, 무인 도넛 자판기 등 비대면 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투자는 당장의 즉각적인 매출개선은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동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을 운영 중인 SPC그룹도 디지털 마케팅에 힘을 주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섰다. 비대면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디지털 마케팅에 힘을 쥐 장기간 마케팅 차별점을 가져가겠다는 목표다. /조효정 기자 princess@